
모스크바가 라틴아메리카로 시선을 향하다:

러시아·베네수엘라 동맹 상황에 대한 정세

아드리아나 보에르스네르·마크람 알루아니

아드리아나 보에르스네르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소재의 메트로폴리탄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이다. 마크람 알루아니는 독일 뮌스터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현재는 카라카스의 시몬 볼리바르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I. 들어가는 말

러시아의 대외 정책 분석은 현 국제관계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그 이유는 유럽 및 세계 안보 체제 형성이나 소비에트연방 붕괴 이후의 신생국 등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對)라틴아메리카 관계에서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는 러시아의 역할 때문인데, 러시아는 통상 조약 및 동맹을 통해 베네수엘라나 브라질 같은 국가와의 관계를 나날이 강화해가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와 러시아는 라틴아메리카와의 관계를 다시 강화하고, 전례 없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사실은 2008년 7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대외 정책의 근본 개념을 정립한 순간 명확해졌다. 그 이후 러시아는 브라질과의 전략적 제휴 공고화, 아르헨티나, 멕시코, 쿠바,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여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국가와 정치적·경제적 협력 및 제

후 확대, 각종 국제기구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공조 강화, 대라틴아메리카 수출 증대 및 지역통합체 계획에 부응하는 분야, 특히 에너지, 기반시설, 하이테크놀로지 관련 계획을 지원하고 있다(Santos 2010, 3).

이 글에서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의 러시아·베네수엘라 동맹이 갖는 구조적 변수와 서반구적 함의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의 라틴아메리카 등장을 먼저 살펴보고, 특히 중점을 두고자 하는 내용은 라틴아메리카 동맹 문제 그리고 소비에트연방 해체 이후 그 같은 냉전을 고스란히 재등장시킨 목적과 대외 정책의 재정립 문제다.

그다음 베네수엘라와 러시아 연방 간 쌍무 관계의 수렴점과 분산점 그리고 1999년 이후 쌍무 관계의 공고화가 갖는 서반구적 함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크렘린의 대외 업무 변화와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및 메드베데프 정권 하에서 미국과의 유대가 약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해 재정리한 일은 새로운 목표 추구 및 러시아 연방과 그 지역 간의 동맹 추구를 촉발하게 된다.

II. 1999년 이후의 러시아·베네수엘라 관계: 절정

2000년 푸틴이 권좌에 오른 후, 라틴아메리카는 크렘린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두드러진 위치를 점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외무부의 대대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는 브라질과 칠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멕시코가 있다. 근년에 들어서서는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최고 수준의 긴밀하고도 지속적인 정치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및 경제 관계에서는 온건한 수준의 발전을 이어왔다. 통상 정책은 2000년 이후에도 1996~1999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다.

최근 몇 년간 정부 간 상호 작용이 상당히 활발한데, 그 사실은 모든 협력 분야에서서의 협약이나 조약 체결, 실행, 갱신으로 나타난다. 최근 10년간 총 150건의 쌍무 협정을 맺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는 쌍무 관계의 기초와 원칙에 대해 15개국의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 국가와 새로운 조약에 서명했다. 통상 및 경제 진흥 부문은 16개국, 문화 협력 부문은 15개국, 과학 및 기술 협력 부문은 11개국, 마약 거래 척결 부문은 10개국, 우주 공간에 대한 투자 및 협력 부문은 3개국과 협정을 체결했다(Gutiérrez 2009, 101-117).

그 중심에 베네수엘라가 자리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카라카스와 모스크바는 다양한 부문에서 긴밀한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다.

1) 무기: 군수 물자 협정은, 2009년에 약 44억 달러의 무기 매매 계약과 22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 이르렀다. 2005년까지 베네수엘라는 이미 10만 정의 칼라스니코프 소총과 밀24(MI-24) 헬리콥터 40대, 미그 29 및 수호이 전투기 35대를 주문한 바 있다. 그 이듬해 미국이 대남아메리카 무기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러시아는 군수 물자와 장비의 주 공급자가 되었고, 그 일은 다시 미국의 대 콜롬비아 무기 판매 명분으로 작용했다(Santos 2010).

2) 석유: 석유 채굴과 정제 문제는 베네수엘라국영석유회사(PDVSA)와 러시아국립석유 컨소시엄(가즈프롬과 루크오일) 간에 조인된 협정의 일부이다. 이 협정은 주로 후닌 6공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오리노코 벨트의 다른 유전을 제외한 추정 매장량은 약 100억 배럴에 달한다. 계획에 따르면 PDVSA는 60% 지분을 갖고, 8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러시아 측이 나머지 40% 지분을 갖는다.¹⁾

1) Reuters: 『Relación de Venezuela con Rusia: armas, energía, política』 en Infolatam, 4/3/2010, www.

3) 에너지: 2010년 베네수엘라는 의약 및 핵에너지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러시아와 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우주 개발 분야까지 협력은 확대된다.

4) 통상: 카라카스 주재 러시아대사관 평가에 따르면, 2010년 쌍무 무역은 1억 6천 5백만 달러(베네수엘라 수출 8백만 달러, 대러시아 수입 1억 5천 7백만 달러)였다. 그해 4월 푸틴의 베네수엘라 방문기간 동안 총 30건의 협약이 조인되었다. 이러한 협약은 오리노코 벨트의 유전 개발에서 자동화기기 산업 부문까지 포괄하고 있는데, 설비·비료·그래픽 기술 제품·비합금 강철·철제 블록·제지 설비·자동제어 장치 등의 상품을 고려할 때 총액은 러시아제 무기 구매를 능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Avellaneda 2011). 반복적인 만남 및 2010~2014년 러시아·베네수엘라 협력 확대를 위한 활동 계획이나 양국 외무부장관 공동선언, 2011~2014년 양국 외무부 간의 협의 계획은 러시아·베네수엘라 정부 간 고위급 회담만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러시아·베네수엘라 은행(Banco Binacional Ruso-Venezolano), 러시아국립석유컨소시엄 운영과 같은 금융부문의 협정 이행과 러시아·베네수엘라 군사 기술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2011년 현재, 축산 등의 품목에서는 베네수엘라의 대러시아 수출이 30% 증가했으며, 자동화기기 같은 분야에서는 러시아의 대베네수엘라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해 7월 베네수엘라 금융은행감독국(Sudeban)은 러시아·베네수엘라 은행의 카라카스 대표부 개설을 허가했다.

infolatam.com/2010/04/04/relacion-de-venezuela-con-rusia-armas-energia-politica/, 검색일: 30/6/2011.

III.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수렴점

과거에는 정치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관계가 거의 없었던 두 나라가 지금과 같은 쌍무 관계에 이르게 된 일은 아주 흥미롭다. 게다가 현재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대외 정책의 수렴점이 양국 외무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국 정치권력의 핵심에서 시작되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양국의 정치 체제도 상이해서, 한쪽은 ‘영도하는 민주주의’이고 다른 한쪽은 고도의 권위주의로 행정부가 의회나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Droguett y Rodríguez 2008, 155-159; Corrales 2009, 103; Romero 2010, 2). 양국은 비록 힘이 같다고 할 수 없으나, 추구하는 방향은 지역적이든 세계적이든 패권을 꿈꾸는 여하한 강대국의 영향력도 약화시키고 나아가 중화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양국은 지역적 차원이나 세계적 차원에서 지정학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노력하며, ‘세계 권력 지도’를 다시 그림으로써 대서양 양안 서구 앵글로색슨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세계의 지정학적 권력을 재배치하려고 한다. 게다가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공히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자기 지역에서 자국의 힘을 강화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다.

러시아 관점, 특히 정치 엘리트와 지식인들의 시각에 따르면 러시아는 모든 측면, 모든 수준에서 소비에트연방이 누렸던 위대함의 지정학적·합법적 계승자이다(Shleifer y Treisman 2011, 123-124; Larson y Shevchenko 2010, 78-82; Tsygankov 2010, 13-14; Olikier, Crane, Schwartx y Yusupov 2009, 87-90). 예전의 초강대국 위상을 되찾고 강대해지려면 21세기의 러시아는 전통적인 ‘근린 국가’에 대한 영향력만 회복하고 강화하고 유지해서 될 일이 아니라 유라시아를 넘어서서 지구 각지에 ‘원린 국가’를 만들어서 국가 안보, 사회·경제와 기술산업 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러시아와 베네수엘라는, 여타 열강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든 아니든,

고유의 지정학적 영향권을 확장하려는 야망에서 자국의 에너지 자원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닮았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유럽연합과의 가스 재계약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자국의 풍부한 천연가스전을 어떻게 이용해왔는지 명확히 드러난다(Yafimava 2011; Baev 2008; Gelb 2007). 러시아·베네수엘라 관계에서 가장 큰 공통점은 자국의 지정학적 위상강화 추구하고 관련된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일치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양국은 상대국의 야심을 이용하고 있다. 미국이 그루지야에 무기를 공급함으로써 러시아의 ‘근린 국가’에 파고들었다는 이유를 들어 러시아는 미국의 ‘뒤뜰’인 라틴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에 무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동일한 이유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흑해 진출과 키르기스스탄 마나스 미군 기지의 설치에 대한 응답으로 2008년 11월 베네수엘라령 카리브해에 러시아 함대가 출현하고 러시아와 베네수엘라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 마지막으로, 지리적·전략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갖는 모스크바와 카라카스 간의 또 다른 공통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바로 양국의 군사 정책, 특히 러시아의 무차별 무기 판매 정책인데, 이는 일차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유이지만(Mankoff 2009, 214) 양국의 장기 무기증강 계획의 일환이기도 하다. 베네수엘라의 러시아 무기 취득을 단순한 군사 장비 거래로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은 무기 거래는 필연적으로 양국 간 긴밀한 기술적·정치적 협력을 수반하게 된다(Mijares 2011, 43-44). 분명한 사실은, 최고 수준에서부터 다양한 영역에 이르는 러시아·베네수엘라의 긴밀한 유대가 베네수엘라 대외 정책의 과도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실효성을 고려해 계산된 전략적 수단이자 위협 대비 수단임을 의미한다. 러시아도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세계에 대한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러시아에게 필요한 방법이 베네수엘라와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IV.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분산점

베네수엘라는 러시아 무기의 주요 고객이 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 같은 협력은 호혜가 아니라 양국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고 있다. 즉 러시아는 경제적·통상적 이득을 얻고, 베네수엘라는 군사기술을 현대화함으로써 지역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 1991년 소비에트연방이 사라진 이후, 러시아는 망해버린 초강대국으로서 제한적인 영향권만 갖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서구에 맞서 20년 넘게 재건을 시도한 끝에 러시아는 국제무대에서 재평가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서구 채권국이 러시아 부채를 탕감해주고 석유 가격이 상승하던 시기인 2000년 이후의 일이다.

‘부상하는 러시아’의 새로운 대외 정책은 전략상 서구와는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군사적·정치적으로 미국과 쌍벽을 이루려는 집착을 누그러뜨리고 있다는 사실, 가스 문제에서 유럽연합과 상당한 협력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핵무기 감축 문제나 이란을 비롯한 여타 중동 국가 관련 현안에서 미국과 대립을 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드러난다.

러시아의 실용주의 노선은, 역량도 다르고 이데올로기적 지향점도 상이한 여러 국가를 상대로 실리 관계를 구축한 점에서 드러나는데,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와의 통상 관계 확대도 그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Sanchez 2010, 368-369 y 372; Ryabkov 2010, 42-43; Burluyai 2007, 53; Sizonenko 2007, 125). 러시아의 ‘사교적 창조성’은(Larson y Shevchenko 2010, 93; Hiro 2010; Instituto Universitario General Gutiérrez Mellado 2009, 109-115) 라틴아메리카를 넘어 브릭스(BRICS)처럼 비슷한 정도의 역량을 가진 국가들 그리고 지리적·문화적으로 근접한 독립국가연합(CIS)이나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와의 동맹 추구 및 NATO 대응체인 상하이 협력기구(SCO) 접근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러시아가 세계에 웃는 얼굴과 실용적인 얼굴을 보인다면, 베네수엘라 대외 정책은 웃음이 거의 없고 덜 실용적인 면모를 내비치는데, 최소한 서구 열강을 대할 때나 시대착오적인 이데올로기 과잉에 마주칠 때는 그런 모습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런 측면이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대외 정책 개념이나 이행에서 양국의 첫 번째 분산점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카라카스가 일반적으로는 서구,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대면할 때 경직되어 있는 반면, 모스크바는 상대국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이나 정치 체제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취하면서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군수품을 포함한 러시아·베네수엘라 무역 규모가 말해주는 사실은, 경제적·금융적으로서 러시아 무기 수출업체 로소보로넥스포트 및 베네수엘라에 진출한 가스프롬이나 로스네프트 같은 여타 러시아 수출업체에 유리한 반면, 베네수엘라는 브라질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역대 국방 대국의 지위로 올라섰다는 수사학적 효과를 내세우고 과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러시아 입장에서 무기 수출은 안정적이고 유용한 외화 수입원이다. 러시아는 이미 남아메리카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에서 수위를 점하고 있고, 베네수엘라는 이 지역에서 최고의 고객이다(Bancroft-Hinchey 2010; Schröder 2008). 러시아제 무기 구매자는 아주 상이한 존재들이다. 세계를 상대로 한 러시아 유일의 국영무기 수출업체 로소보로넥스포트는 업무와 관련해 의견상 단 하나의 기준만을 두고 있는데, 바로 상업성이다. 물론 상업적 기준은 러시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고 국제연합기구(UN)의 규정에 적합하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드디어 우리는 러시아·베네수엘라 관계에서, 특히 언론 영역에서 또 다른 분산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차베스의 빈번한 방문과 관련된 킨 크렘린의 언론 정책은 언론매체 앞에서 열광을 피하면서 신중하고도 차분한 태도를 견지해왔는데, 그런 모습은 차베스 대통령의 행보를 대대적으로 다루는

베네수엘라의 경향과는 분명하게 대조된다(Barra 2008, 10). 크렘린은 베네수엘라의 전략적 분야에서 존재감을 점점 확장해가고 공고히 하고 있는 반면, 미라플로레스는²⁾ 포스트공산주의 강대국 러시아와 신뢰할 만한 동맹에 대해 일방적인 언론상의 이미지를 강화하면서 그럴듯하고 값비싼 무기를 늘려가는 데 만족하고 있다.

V. 러시아·베네수엘라 동맹의 서반구적 함의

이미 지적했다시피, 러시아 대외 정책 전문가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 점은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푸틴 총리의 크렘린이 이제 활동 영역을 ‘근린 국가’에만 한정하지 않고 오히려 세계적인 초강대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러시아의 야망을 확대시켜왔다는 사실이다. 한편 미국의 신보수주의 정치 세력은 여전히 라틴아메리카를 ‘뒤뜰’로(Smith 2008, 360 y 368; Grandin 2006, 1-9; McPherson 2006, 1-14)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유럽 연합이든 러시아이든 중국이든 간에 미주 대륙 외부 열강의 활동은 자칫 미주 국가 내정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개입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약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라틴아메리카 헤게모니 영향력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건 아니건 간에, 러시아의 등장은 볼리비아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전통적 ‘근린 국가’를 넘어서서 국제 정책의 틀을 짜려는 러시아의 내적 요인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러시아로서는 자문관을 통해서이든, 에너지 플랜트를 통해서이든, 군사기술 장비나 기지를 통해서이든 지구의 방방곡곡,

2) 미라플로레스는 베네수엘라 대통령관저를 가리킨다-옮긴이.

특히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을 가진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자신의 깃발과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려고 한다. 이처럼 모스크바는 세계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을 뿐만 아니라 현대적이고 민주적인 유라시아로서 러시아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열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주 대륙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경쟁 구도(중국까지 고려할 경우 삼자 구도)가 위기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갈등을 의미하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다. 오히려 대러시아 관계를 ‘재편’하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은, 러시아를 압박하면서 새롭게 접근하겠다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던, 조지 W. 부시 신보수주의 정부의 야심이 오바마 시대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모스크바의 엘리트들이 깨닫도록 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해왔다(Blank 2010, 333-367; Ryabkov 2010, 40-42). 게다가 오바마 정부가 라틴아메리카 문제에 상대적으로 그리고 비교적 관심을 적게 기울인다는 사실은 라틴아메리카가 이제는 배타적인 미국만의 앞뜰도 뒤뜰도 아니라는 가정을 정당화해준다.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에서 전개되고 있는 피비린내 나는 마약 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라틴아메리카보다는 자국의 경기침체,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 아랍의 봄, 위키리크스 폭로의 후폭풍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란이라는 요인 그리고 이란과 러시아의 핵 연대는 무시할 수 없는데, 특히 베네수엘라와의 삼자 연대 가능성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 가스프롬, 로스네프트, 로소보로넥스포트 같은 회사가 러시아 정부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의 국제적 주역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Segbers 2011; Dobronravin 2011; Duncan 2007; Wenger, Perovic y Orttung 2006, 125-130 y 168-169), 유럽에 석유를, 이란에 원전을, 베네수엘라나 여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핵 기술을 판매하려고 하는 러시아의 노력과는 별개로 활약하고 있다. 러시아의

‘온건한 힘’이 경제금융, 군사기술 등 다양한 모습으로 안데스 지역, 그리고 그 지역을 넘어서 라틴아메리카에 등장하는 것은 러시아·베네수엘라 동맹의 직접적 함의가 아니라 러시아가 세계무대에 재등장한 결과이다.

21세기 초반부터 러시아가 미주 무대에 진출한 데는 여러 산과가 있었다. 그 중 두 가지를 우선 거론할 수 있다. 첫째는 러시아의 회복된 자존심과 푸틴이 천명한 러시아 부활의 열망이고, 둘째는 미국의 방치로 생긴 지역적 공백이다. 이러한 서구 내 미국 영향력 약화는 세계화와 중국의 라틴아메리카 경제개입 확대로 인해 가속화,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자칫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항구적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러시아는 BRICS 국가와 긴밀하고도 점증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것은 크렘린 입장에서 보면 세계무대의 다극성(multipolaridad)을 증대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게다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모스크바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에너지 협력을 넘어서서 이데올로기적 이유로 유대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 맞서 세력 균형을 이루려는 러시아에게 중국은 베네수엘라나 쿠바, 시리아, 리비아, 북한처럼 유사한 지향성을 가진 국가와 마찬가지로 탁월한 ‘반(反)헤게모니 동지’이기 때문이다(Ambrosio 2005, p. 95). 한편, 베네수엘라가 라틴아메리카에서 현재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동맹들은 ‘우리 아메리카 민중을 위한 볼리비아 동맹’(ALBA)처럼 일차적으로 이데올로기적·수사적 본질을 띠고 있다. 이는 곧 베네수엘라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지역 동맹들을 효과적으로 제도화하고 조율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한다.

VI. 결론

이러한 맥락에서 라틴아메리카 관점으로 먼로독트린을 떠올려보는 것도 흥미롭다. 1823년 공포된 먼로독트린은 1982년 포클랜드전쟁 이후 사실상 유명 무실해졌으며, 리오그란데 강 이남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장래가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점은 다들 알고 있다. 하지만 먼로독트린이 현재 ‘혼수상태’, ‘불활성 상태’, ‘정지 상태’ 혹은 공식적으로 매장된 상태에 놓여 있든 아니든 간에 본 연구와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하다. 라틴아메리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정치적 세계화, 특히 중국, 유럽 연합, 러시아의 점증하는 영향력에 맞서 미주 대륙의 어떤 세력이 먼로독트린을 내세울 수 있을까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이론적으로 그럴듯하고 심지어 실현 가능한 장면들, 사건들, 조건들의 폭은, 워싱턴 ‘재편’ 정책의 예측 불가능한 부침 작용 속에서 크렘린 측에 불리한 미국 활동에 대한 러시아의 자연스러운 대응으로써, 일반적으로는 서구, 구체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 러시아 등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 1) 폴란드와 체코에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계획(미국의 압박)에 대한 NATO 측의 반응
- 2) 새로운 미사일 방어책의 하나로 미국이 루마니아에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는 문제(미국의 압박)에 대한 NATO 측의 결정
- 3)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미국의 압박)에 대한 NATO 측의 결정
- 4) 러시아의 ‘근린 국가’, 특히 중앙아시아에 미군을 증강 배치하는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결정

- 5) 러시아 흑해 함대의 세바스토폴 해군기지 이용 허가를(미국의 압박으로) 취소할 건지 아니면 취소한다고 협박할 건지에 대한 우크라이나 측의 결정
- 6) 북극 지역 해양 개발 및 운송 권리에 대한 러시아의 주장을 약화시키기 위한 미국의 압박
- 7) 거의 독점적인 러시아의 대 유럽 및 중국 천연가스 공급을 약화시키기 위한 유럽 내 미국의 활동

10년간의 움츠림을 극복하고 세계무대에 재등장을 꿈꾸는 러시아는, 구조적 비대칭이라는 형태까지 포함해 러시아·베네수엘라 동맹을 크렘린과 백악관 사이의 균형 유지를 위한 도구, 미국에 대한 압박 및 협상 기제로 이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 이란이 미사일 기지를 세울지도 모른다는 점이나 미국에 대한 협박 수단으로 볼리비아에서 레바논 헤즈볼라가 군사 활동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미 하원의 우려는 자칫 러시아에 의해 이용될 수도 있다. 러시아가 차베스 정부나 이란 몰라의³⁾ 세계 지정학적 야망(물론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력 혹은 군사력을 넘어서는 일이긴 하지만)을 중개하거나 누그러뜨릴 적격자로 자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와 함께 시작하고 협력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라틴아메리카, 특히 카리브와 안데스 지역에서 러시아의 활동은 세 가지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예상할 수 있다.

3) 몰라는 이슬람 혁명 이념 수호자를 자처하며 신과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하메네이에게만 충성을 바치는 보수적인 성직자를 가리킨다. 옮긴이.

- 1) 미국의 활동에 비례하는 수준
- 2) 순수한 러시아 경제적·통상적 이해관계 수준
- 3) 러시아 지정학적 및 지리적·전략적 이해관계 수준, 하지만 경제적인 면에
경도되어 있음.

첫 번째 수준은 크렘린의 지도자들이 모스크바에 대한 도발이나 국가안보 및 지역적이고 세계적인 전략적 이해관계에 반하는 불법 행위라고 인식할 정도로 미국이 러시아 '근린 국가'에서 활동할 때, 이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두 번째 수준에서는 서구 내 러시아 활동을 자극하는 순전히 상업적이고 통상적인 이해관계가 문제 되는 반면, 세 번째 수준에는 BRICS나 베네수엘라 같은 라틴아메리카 각국과의 쌍무 동맹을 동원할 수도 있고 동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국제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 자리하고 있다.

_ 강성식 옮김

원제와 출처

"Moscú mira hacia América Latina Estado de situación de la alianza ruso-venezolana",
Nueva Sociedad, N° 236, noviembre-diciembre de 2011, pp. 16-26.

참고문헌

- Ambrosio, Thomas(2005), *Challenging America's Global Preeminence: Russia's Quest for Multipolarity*, Aldershot: Ashgate.
- Avellaneda, Armando(2011), “Entrevista al Embajador de Rusia en Venezuela, Vladimir Zaemskiy”, 2011.
http://www.venezuela.mid.ru/int_e_05.html
- Baev, Pavel K.(2008) *Russian Energy Policy and Military Power: Putin's Quest for Greatness*, Routledge.
- Bancroft-Hinchey, Timothy(2010), “Russian Arms Sales Overtake US in Latin America” en Pravda.ru, 2/9/2010,
http://english.pravda.ru/russia/economics/09-02-2010/112127-russian_arms_sales-0/>;
- Barra, Ivan Witker(2008), “Actores extrarregionales en escenarios complejos: Rusia como nuevo actor hemisférico”, *Security and Defense Studies Review*, invierno de 2008.
<http://www.ndu.edu/chds/src-Colombia09/Papers/Witker%20chile.pdf>
- Blank, Stephen(2010), “Beyond the Reset Policy: Current Dilemmas of US-Russia Relations”, *Comparative Strategy* vol. 29 No. 4, 2010.
- Burlyai, Jan(2007), “Russia's Latin American Tango”, *International Affairs* vol. 53 No. 3, 2007.
- Corrales, Javier(2009), “Using Social Power to Balance Soft Power: Venezuela's Foreign Policy”,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2 No. 4, 2009.
- Droguett, Rodrigo Buguëño y Raúl Placencia Rodríguez(2008), “Hugo Chavez y Vladimir Putin: hidrocarburos, regimenes autoritarios y diplomacia energética”, *Latinamerika Analysen* No.1, 2008.
- Duncan, Peter “ ‘Oligarchs’, Business and Russian Foreign Policy: From El'tsin to Putin”, documento de trabajo No. 83, Centre for the Study of Economic and Social Change in Europe, School of Slavonic and East European Studies, Londres: University College.
http://www.ssees.ucl.ac.uk/publications/working_papers/wp83.pdf
- Entrevista a Klaus Segbers en la Universidad Libre de Berlín, 26 de mayo de 2011.
- Entrevista a Nikolai Dobronravín, Universidad de San Petersburgo, 21/6/2011.
- Gelb, Bernard(2007), “Russian Natural Gas. Regional Dependence”, informe del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S22562, Washington, DC.
- Grandin, Greg(2006), *Empire's Workshop: Latin America, the United States, and the Rise of the New*

- Imperialism*, Nueva York: Owl.
- Gutiérrez, Álvaro García(2009), “Nuevas tendencias de la política exterior de Rusia. Perspectivas para América Latina”, *Relaciones Internacionales* No. 47, 2009.
<http://www.afese.com/img/revistas/revista47/tendenciarusa.pdf>
- Hiro, Dilip(2010), *After Empire: The Birth of a Multipolar World*, Nueva York: Nation Books.
- Instituto Universitario General Gutiérrez Mellado de Investigación sobre la Paz, la Seguridad y la Defensa(2009), *Venezuela y la Revolución Bolivariana*, Madrid: IUGM / UNED,
- Larson, Deborah Welch y Alexei Shevchenko(2010) “Status Seekers: Chinese and Russian Responses to US Primacy”, *International Security* vol. 34 No. 4, 2010.
- Mankoff, Jeffrey(2009), *Russian Foreign Policy: The Return of Great Power Politics*, Rowman & Littlefield.
- McPherson, Alan L.(2006), *Intimate Ties, Bitter Struggles: The United States and Latin America since 1945*, Dulles: Potomac Books.
- Mijares, Victor M.(2011), “Guía rápida para analizar las compras militares”, *VenePolicy* No. 1, 1-3, 2011. <http://bit.ly/i5nOqF>
- Oliker, Olga; Keith Crane, Lowell H. Schwartz y Catherine Yusupov (2009), *Russian Foreign Policy: Sources and Implications*, RAND Publishing, 2009.
http://www.rand.org/pubs/monographs/2009/RAND_MG768.pdf
- Romero, Carlos A. “La política exterior de la Venezuela Bolivariana”, documento de trabajo No. 4, *Plataforma Democrática*, julio de 2010.
<http://www.plataformademocratica.org/Archivos/La%20politica%20exterior%20de%20la%20Venezuela%20bolivariana.pdf>
- Ryabkov, Sergey(2010), “Russia-US: Time to Make Up for Lost Time”, *International Affairs (Moscow)* vol. 56 No. 4, 2010.
- Sanchez, W. Alejandro(2010), “Russia and Latin America at the Dawn of the Twenty-First Century”, *Journal of Transatlantic Studies* vol. 4 No. 8, 2010.
- Santos, Gabriel(2010), “La nueva política exterior rusa”, México: Cámara de Diputados.
<http://www.diputados.gob.mx/cedia/sia/spe/SPE-ISS-04-10.pdf>
- Santos, Gabriel(2010), “Rusia en América Latina”, México: Cámara de Diputados,
<http://www.diputados.gob.mx/cedia/sia/spe/SPE-ISS-06-10.pdf>
- Schröder, Henning(2008), “Medwedew Ante Portas: Konturen der neuen russischen Außenpolitik”, *SWP-AKTUELL*, 6/2008.
- Shleifer, Andrei y Daniel Treisman(2011), “Why Moscow Says No”, *Foreign Affairs* 1-2, 2011.
- Sizonenko, Aleksandr I.(2007), “Latin America. A Fixture in Russian Diplomacy”, *International*

Affairs vol. 5 No. 1, 2007.

Smith, Peter H.(2008), *Talons of the Eagle: Latin America,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Nueva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Trenin, Dmitri(2010), “Rusia rediviva. La reinención de la política exterior de Moscú”, *Foreign Affairs Latinoamérica* vol. 10 No. 1, 2010.

Tsygankov, Andrei P(2010) *Russia's Foreign Policy. Change and Continuity in National Identity*, Rowman & Littlefield, Lanham.

Wenger Andreas, Perovic Jeronim y Orttung Robert W.(eds.)(2006), *Russian Business Power: The Role of Russian Business i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Nueva York: Routledge.

Yafimava, Katja(2011) *The Transit Dimension of UE Energy Security: Russian Gas Transit Across Ukraine, Belarus, and Moldova*, Oxford University Press.